

‘2연패 부진’ 광주FC, 안방서 반전 노린다

내일 인천유나이티드와 4R 2경기서 골 결정력 부족 아쉬움 외인 공격수 3인방 득점포 관건 엄지성 등 광탄소년단 활약 기대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 광주FC가 악바리 근성으로 홈에서 반전을 노린다. 광주 선수단은 최근 2연패의 충격을 딛고 인천유나이티드전 필승을 다짐하고 나섰다.

광주FC는 18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2일 2라운드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제 2연패를 당했다. 리그 우승을 바라보는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끝까지 투혼을 불사르며 득점을 노렸으나 아쉽게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마무리 슈팅 능력 등 결정력 부족이 패인이었다.



광주FC는 18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전북현대 모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협력 수비를 이겨내는 토마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는 2연패의 충격에서 빠져나와 전열을 재정비해 인천전 승리로 반전을 꾀한다는 각오다.

광주는 서울, 전북 등 강팀과의 연전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악바리같은 근성으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했고, 4백과 3백 등 상황에 맞는 전술 변화로 대

응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이번 인천전에서도 과감한 공격 축구로 맞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골 결정력을 높여야 한다. 광주는 개막 후 3경기에서 1골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공격수 3인방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광주에

합류해 K리그2 19경기에서 7골 4도움을 기록하며 광주의 후반기 질주를 이끌었던 브라질 특급 공격수 산드로의 발끝이 더욱 날카로워져야 한다.

또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새로 영입된 알바니아 출신 윙어 아사니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의 골 결정력도 살아야 한다.

이 감독은 특히 광주 유스 출신 ‘광탄소년단’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팀의 에이스 엄지성이 경고 누적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다. 엄지성의 복귀로 공격에서 파괴력과 마무리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전방 공격수 허율과 다재다능함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희균, 중원의 살림꾼 정호연도 칼을 갈며 인천전을 준비하고 있다.

엄지성, 허율, 정호연은 각각 올림픽 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승선한 만큼 소집에 앞선 이번 인천전에서 실력 발휘를 유감없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대인 인천은 지난 시즌 4위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강팀이다. 미드필더 이명주와 신진호의 무게감에 에

난데스와 제르스 등 기동력까지 갖췄다. 광주와의 역대 전적은 6승 12무 6패로 호각지세다.

광주 선수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인천이지만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차 있다. 최근 맞대결이었던 2021시즌 인천에게 2승 1무 1패로 앞선 데다 홈에선 2승 1무로 강했다. 또 지난 2021년 4월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 첫 승의 제물도 인천이었고, 지난 2022년 FA컵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6-1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은 이번 인천과의 맞대결에서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신진호, 이명주에서 시작되는 패스 줄기를 차단해 중원을 장악하고 엄지성, 산드로, 아사니 등의 빠른 공격으로 맞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마지막 페널티 박스로의 크로스와 패스 보완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며 인천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악바리같은 투지로 광주의 색깔을 제대로 발휘해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김은중호, U-20 아시안컵 결승 실패

4강서 승부차기 끝 우즈벱에 패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한 김은중호가 우즈벱에 11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우즈벱스탄 타슈켄트의 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즈벱스탄과 연장까지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3으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2012년 우승 이후 11년 만의 대회 정상 탈환을 이루지 못했다.

8강에서 중국을 연장 접전 끝에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올해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본선 출전

권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상위 4개국에 U-20 월드컵 본선 티켓을 주는데, 한국과 우즈벱스탄, 이라크, 일본이 출전권을 가져갔다.

한국은 이날 우즈벱스탄과 전·후반을 득점없이 마치고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울었다.

한국은 첫 번째 키커인 강성진과 두 번째 키커인 강상윤이 연속해서 실패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세 번째 키커 박창우가 성공했지만, 네 번째로 나선 김지수가 막히면서 무릎을 꿇었다.

우즈벱스탄은 1번으로 나선 아보스 베크 파이줄라예프를 시작으로 마흐무드 존마하마드조노프, 압디라흐마토프가 차례로 성공했다. 뉴스



한국 U-20 축구대표팀 김지수(오른쪽)가 16일(한국시간) 우즈벱스탄 타슈켄트의 분요드코르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준결승 우즈벱스탄과의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AP/뉴스

김민재 ‘맹활약’... 나폴리, UCL 첫 8강행

팀 1·2차전 합계 5-0 승

이탈리아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나폴리·사진)가 부상 우려를 씻고 소속팀 나폴리의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기여했다.

김민재는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21분까지 66분을 소화했다.

나폴리는 이날 3-0 완승을 거두며 1·2차전 합계 5-0으로 승리, 8강에 진출했다. 지난달 22일 원정 1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나폴리는 1926년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 무대를 밟게 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선 나폴리를 비롯해 AC 밀란, 인터 밀란 등 세 팀이 8강



에 진출했다. 이 밖에 첼시, 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벤페라(포르투갈)가 8강

에 올랐다.

김민재는 지난 12일 아탈란타와 리그 경기에서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큰 이상 없이 선발로 출전해 공수에서 활약했다. 3-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자 무리하지 않았다. 후반 21분 중앙 제주스와 교체됐다. 나폴리는 전반 추가시간 빅터 오시멘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다. 마테오 폴리타노의 크로스를 오시멘이 헤더로 연결해 프랑크푸르트의 골네트를 갈랐다.

오시멘은 후반 8분 추가골을 터뜨리며 2-0 리드를 이끌었다. 나폴리는 후반 19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의 세 번째 골에 힘입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뉴스

전남드래곤즈, 김포FC 상대로 연승 도전

19일 광양전용구장서 4R 홈경기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홈에서 김포FC를 맞아 연승 도전에 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3 4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3라운드 서울이랜드 FC와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겨 개막 2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전남 선수단은 이제 김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연승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남 부주장 김수범은 “힘겨웠던 서울이랜드 원정 경기에서 선수들이 잘 버텨내며 승점 3점을 챙겼다”며 “기세를 이어 홈 팬들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김포전의 선봉에는 발디비아와 시모비치가 나선다. 발디비아와 시모비치는 지난 서울이랜드전에서 후반 36분 결승골을 합작하며 팀에 첫 승을 안겼다. 시모비치가 유태이의 스로인을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감각적인 패스로 상대 골키퍼 문정인의 키를 넘겼고, 쇠도하던 발바디아가 공을 밀어넣었다.

발디비아는 이 골로 경기 MOM(Man Of the Match)는 물론 라운드 MVP까지 휩쓸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시모비치도 이번 김포전에서

데뷔골을 조준한다. 측면에서는 윙어 추상훈과 플라나가 공략에 나선다.

하지만 김포는 전남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 전남은 지난 시즌 김포와 네 차례 맞대결에서 2무 2패로 고전했다. 지난 시즌 전남을 상대로 2골을 기록한 손석용은 경계 대상이다.

그럼에도 이장관 전남 감독은 승리를 자신했다. 이 감독은 “이번 시즌 김포의 모든 경기를 분석한 결과 김포는 예상대로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축구를 구사한다”며 “작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전남답게 경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이번 김포와의 홈경기 입장 관중을 위해 디오션 숙박권과 올시즌 홈유니폼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한규빈 기자